

쿠팡플레이 금주의 추천작: 4월 1주 차

2025. 3. 27.

쿠팡플레이에서 볼만한 추천작을 각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 쿠팡플레이 4월 1주 차 추천작을 소개합니다.

SNL 코리아 시즌 7

4월 5일(토) 저녁 8시 최초 공개



신동엽 / 안영미 / 이수지 / 김민교 / 정성호 / 권혁수 / 김원훈 / 지예은 / 한국 / 2025

대한민국을 장악한 유일무이 리얼 코미디 쇼, 쿠팡플레이 가 오는 4월 5일(토) 저녁 8시 시즌 7으로 화려하게 돌아온다! 떴다 하면 '맘 스타' 자리를 예약하는 초특급 호스트와 웃은 전투력 만렙인 '민보' 크루가 만드는 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1위 리얼 코미디 쇼다. 이번 시즌에도 신동엽, 안영미, 이수지, 김민교, 정성호, 김원훈, 지예은 등 핵심 웃음을 책임져 온 베테랑 크루들이 그대로 합류했고, 여기에 새로운 크루의 등장이 예고되며 벌써부터 많은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시즌 7의 포문을 여는 첫 호스트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 하정우. 연기와 연출을 넘나든 그가 에서 어떤 코미디를 선보일지, 첫 화부터 역대급으로 뜨거운 화제성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봄, 웃음이 필요한 시간. 다시, SNL의 시간이 시작된다!

['SNL 코리아 시즌 7'](#)

밴드 오브 브라더스



©2025 Home Box Office, Inc. All rights reserved. HBO® and all related channels and service marks are the property of Home Box Office, Inc.

전쟁 / 데미안 루이스 / 론 리빙스턴 / 닐 맥도프 / 릭 워든 / 도니 월버그 / 미국 / 2001

“전쟁 드라마의 전설이 된 단 하나의 작품”. 스티븐 스피버그와 톰 행크스가 공동 제작한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선에서 실존했던 ‘이지 중대’의 이야기를 치밀한 고증과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려낸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부터 독일 항복까지, 참전 병사들이 실제로 겪은 전쟁의 공포와 혼란, 동료를 잃는 슬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깊은 울림을 전한다. 총성이 멈춘 장면에서도, 각 인물의 시점으로 다각도로 펼쳐지는 에피소드들은 단순한 전투 장면을 넘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견뎌내는지 보여준다. 한 편 한 편이 장편 영화같은 퀄리티로 완성됐으며, 대규모 전투 장면과 디테일한 분장, 감정의 여운을 남기는 연출까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완성도를 자랑한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

하우스 오브 드래곤



©2025 Home Box Office, Inc. All rights reserved. HBO® and all related channels and service marks are the property of Home Box Office, Inc.

드라마 / 판타지 / 패디 콘시딘 / 소노야 미즈노 / 올리비아 쿡 / 맷 스미스 / 미국 / 2022

<왕좌의 게임> 이전, 드래곤의 시대가 시작된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왕좌의 게임>의 프리퀄인 <하우스 오브 드래곤>은 타르가르엔 가문 내부의 균열과 왕위 계승 전쟁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화려한 세계관과 정치적 밀당, 불타는 욕망과 복잡하게 얽힌 가족 관계까지, 정통 판타지와 권력극의 정수를 보여준다. 왕좌를 두고 벌어지는 인물 간의 갈등과 선택은 매 순간 긴장감을 놓지 않으며, 타르가르엔 가문의 후계 구도는 단순한 정치 드라마를 넘어, 가족애와 배신, 신념과 운명 사이의 치열한 충돌을 그려낸다. 특히, 드

래곤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서사의 중심에 들어서며 세계관의 상징성과 압도적인 스케일을 동시에 확보했고, 각 가문에 속한 드래곤과 라이더의 강력한 비주얼은 이 시리즈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스토리의 몰입감을 한층 끌어올린다.

[‘하우스 오브 드래곤’](#)

웨스트월드



©2025 Home Box Office, Inc. All rights reserved. HBO® and all related channels and service marks are the property of Home Box Office, Inc.

SF / 에반 레이첼 우드 / 제프리 라이트 / 에드 해리스 / 테사 톰슨 / 미국 / 2016

서부 개척 시대를 본뜬 초대형 테마파크 <웨스트월드>. 이곳은 인간 고객들이 현실의 도덕과 규범을 벗어나 마음껏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 테마파크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바로 테마파크의 인공지능 호스트는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어느 날, 매일 같은 하루를 살아가던 호스트들은 삭제되던 기억을 붙잡고, 감정을 인식하며,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계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자신이 반복되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일 뿐이라는 진실을 마주한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프로그램이 아니라, '의식'을 가진 존재로 변해가며, <웨스트월드>는 그 순간부터,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한다.

[‘웨스트월드’](#)

체르노빌



재난 / 자레드 해리스 / 스틸란 스카스가드 / 에밀리 왓슨 / 미국 / 2019

“기록되지 않은 진실, 말하지 않았던 비극”.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를 다룬 <체르노빌>은, 철저한 고증과 압도적인 긴장감으로 역사적 재난을 가장 현실감 있게 재현한 드라마로 손꼽힌다.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되, 단순히 사고의 원인을 추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그 안에서 고통을 감당하고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의 내면과 윤리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사건의 전개는 대규모 파괴와 혼란보다 보이지 않는 공포와 무지, 그리고 체제 속 침묵이 만든 비극성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방사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일상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며, 대사 한 줄 없이도 숨이 턱 막히는 장면들,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만드는 연출, 인물의 감정선에 철저히 맞춘 서사는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낸다.

[‘체르노빌’](#)

유포리아



하이틴 / 젠데이아 콜먼 / 모드 아패투 / 앵거스 클라우드 / 알렉사 데미 / 미국 / 2019

“세상은 무심하고, 우리는 너무 예민하다”. 10대, 혹은 10대였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짜 이야기를 담은 <유포리아>는 약물 중독과 트라우마, 성 정체성, 관계 중독, 외로움과 분노 등 현대 청소년의 감정과 현실을 거침없이 조명하는 하이틴 드라마다. 주인공 ‘루’를 연기한 젠데이아는, 10대 중독자이자 관찰자, 그리고 해설자의 위치에서 이 이야기를 이끄며,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관객도 유포리아적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이 시리즈는 단순히 10대의 일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혼란스럽고 복잡한 감정의 결을 시청자에게 ‘체험’하게 만든다. 또한, 마치 감정의 안개 속을 걷는 듯한 시청 경험, 실험적인 카메라 무빙, 컬러풀한 조명, 몽환적인 사운드트랙이 어우러져 하나의 시각예술처럼 화면 위에 펼쳐진다.

[‘유포리아’](#)

안나



드라마 / 수지 / 정은채 / 김준한 / 박예영 / 김수진 / 백지원 / 한국 / 2022

지방 소도시, 가난한 아버지와 장애가 있는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반짝이는 아이. 잘 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유미(수지)'는 언제나 사람들의 칭찬과 함께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 그러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을 그르치게 되고, 도망치듯 올라온 서울에서 치른 시험은 불 보듯 뻔한 결과를 가져온다. 자존심 때문에 무심코 거짓말을 하게 된 '유미'는 가짜 대학생이 되고, 습관처럼 하던 거짓말은 어느새 자기 자신조차 진짜라고 믿게 될 만큼 강력한 진실이 되고 만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 나아질 거라는 믿음에 배반당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질투에 사로잡힌 그녀는 '이유미'에서 '안나'로의 삶을 선택한다. 이름, 가족, 학력, 과거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삶을 누리게 된 순간, 예기치 못한 인물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

['안나'](#)

트루먼 쇼



코미디 / 사라 제시카 파커 / 킴 캐트럴 / 크리스틴 데이비스 / 신시아 닉슨 / 미국 / 1998

작은 섬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30세 보험회사원 '트루먼 버뱅크(짐 캐리)'. 아내와 홀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진다. 의아해하던 '트루먼'은 길을 걷다 죽은 아버지를 만나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라디오에 생중계되는 기이한 일들을 연이어 겪게 된다. 지난 30년간 일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어딘가 수상하다고 느낀 '트루먼'은 모든 것이 '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첫사랑 '실비아'를 찾아 피지 섬으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가족, 친구, 회사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가짜인 '트루먼 쇼'. 과연 트루먼은 진짜 인생을 찾을 수 있을까?

['트루먼 쇼'](#)

터미널



드라마 / 톰 행크스 / 캐서린 제타 존스 / 조 셀다나 / 스탠리 투치 / 미국 / 2004

동유럽의 작은 나라 '크로코지아'에서 온 평범한 남자 '빅터 나보스키(톰 행크스)'. 꿈에 그리던 뉴욕에 도착한 순간, 그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는다. 자신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이, 고국에선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이 붕괴했고, 크로코지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국가'가 되어버렸다. 그 결과, 빅터는 미국 입국도, 본국 귀국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존재가 되어 뉴욕 JFK 공항 터미널 안에서 발이 묶이고 만다. 언어도, 돈도, 기댈 사람도 없는 낯선 공항.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는다. 버려진 카트를 모아 동전을 벌고, 공항 직원들과 친구가 되며, 조금씩 그 공간 안에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간다.

['터미널'](#)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